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은가?

기사입력 2012-04-16 09:15 최종수정 2012-06-22 18:54



[이송이 기자] 인공치아이식술인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치아이식방법이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이식, 골신장술 등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방법이다.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치아가 손실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치아의 기능, 형태적인 심미성, 저작의 편리함, 정확한 발음,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임플란트는 기능적인 면이나 심미적인 면이 자연치아과 거의 같은 정도로 기능이 뛰어나고 수명 또한 반영구적이어서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임플란트이지만 드물게 감각이상이나 턱뼈가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를 받을 치과를 선정할 경우에는 가격에만 치중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고 안정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임플란트를 받을 치과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상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문제해결과 치과지식의 공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에는 최소한 절개를 하고 통증도 최소화 하는 '최소절개 최소통증'이 필요하다. 저통마취 시스템으로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레이저시술로 최소부위만 절개하여 시술하는 치과가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좋다.

일명 '물방울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안정성 높은 시술은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치아와 턱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D입체 CT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기기는 X선이나 엑스레이보다 3천배 이상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술부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플란트 실패의 주요 원인은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 내부의 복잡한 환경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 계획했던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밖에도 체내의 거부 반응이나 수술 후 환자가 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을 했을 경우 주로 발생한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임플란트 시술은 정교하면서도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시술방법입니다. 치료 부위의 상태에 따라 시술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의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선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전한다.

김 원장은 또 "최근 임플란트 가격의 대중화 때문에 환자들도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라고 지적한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힘인 치아 좌우의 교합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마다 치아 좌우의 씹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맞춰 주어야 음식도 잘 씹을 수 있고 전체 치아가 고르게 운동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임플란트를 원하는 환자라면 '최소절개 최소통증'의 원칙에 따라 시술하는가, 믿을 수 있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CT촬영을 통해 치아, 턱뼈, 얼굴 뼈 부위의 영상을 입체화면으로 구현해 환자의 정확한 치조골의 상태를 파악하는가 등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갤럭시 노트 핑크 "여심 잡는다"

▶ 男 40% '임신 가능한 女' 원한다

▶ 중고 패밀리카 구입 "지금이 적기"

▶ 오피러스 끝없는 추락 “K9 때문에...”

▶ 기아 ‘K9’ 실내공간 들여다보니 “웅장한 디자인에 감탄”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74538>
